

이제야 옹게 밝혀지는 우리 옛 땅이름들

「韓國古地名辭典」 펴낸 전용신교수

어느 학자는 땅의 이름인 地名을 가리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사의 단편으로서 지상에 현존하는 것”이라고 문화사적 정의로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듯, 애오개, 힐차양, 하술, 여강...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 땅의 전설과 삶의 양태, 주민들의 희원을 담아내는 땅이름에는 그저 사소해보일 수 있는 데에까지 미쳐있는 옛사람들의 지혜로움의 한 극단을 만나다.

지리학은 물론이고 역사학, 국어학, 고전연구에 땅이름이 빠질 수 없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그것에서 사람살이의 습속과 신앙, 민속과 사상, 언어습관 같은 것을 비롯해 무리의 이동과 정착과 같은 당시대의 특징들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까지도 그 이름을 존속시키고 있거나, 퇴적물처럼 사료의 지층 저 아래에서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던 간에 거기에는 당대 인간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편린이 있게 마련이다.

옛책과 고지도에서 찾아낸 4500여 표제어

역사책이나 고전소설, 옛지도 등에 나타나 있는 우리네 옛지명들을 간략한 연혁과 함께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지명으로 알기쉽게 풀이해 놓은 「고지명사전」은 역사순례를 떠나려는 이들에게는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침판에 비교된다. 그래서 올해 일흔셋의 한 노옹이 5년여의 수작업과 발품을 팔아가며 거뒀을 「韓國古地名辭典」(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는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은 물론 옛문헌을 뒤적이며 문득문득 나타나는 요령부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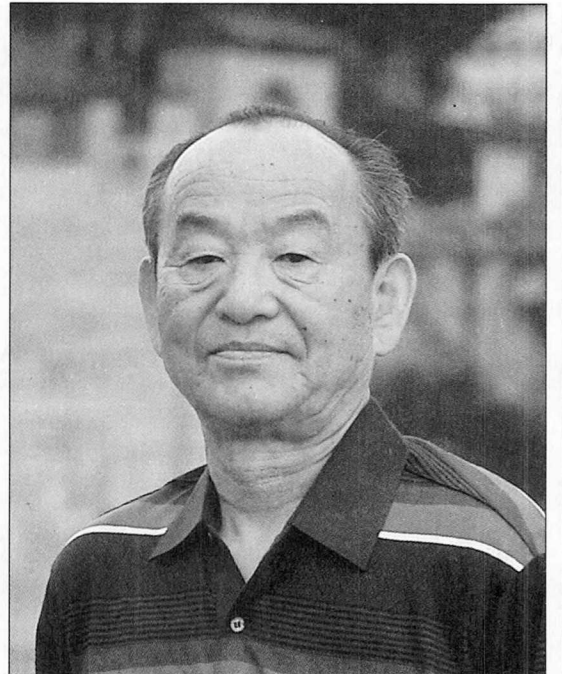
지명들에 궁금증을 가졌던 요즘의 독자들에게 반가운 참고자료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리라.

‘가곡현’ ‘가덕부곡’ ‘가도’ ‘가라’ 로부터 시작해 ‘희안’ ‘희양’ ‘희계’ ‘희주’ ‘희천군’ ‘힐차양’으로 끝이 나는 ㄱ, ㄴ, ㄷ... 순의 4500여 본문의 표제어는 사연이 많고 변화가 극심했던 지역은 길게, 異說이 있는 곳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실는가 하면, 문헌에는 나타나나 아직 그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은 곳은 미상인 채로 두는 등 설명에 신중성을 두어가며 조심스럽게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 지명에 대해서 해설한 것으로는 권상으로 써가 지난 61년에 펴냈던 「한국지명연혁고」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흠이라면 한자가 너무 많아 한글세대가 찾아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지요. 그 책이 저본으로 삼았던 고지명들이 상당량 들어있는 「삼국사기」(지리지) 「新增동국여지승람」 「삼국유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다시 찾아보고, 「동국여지승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관방의 위치 등 새로운 지명이 다수 수록돼 있는 대동여지도, 「난중일기」 등의 고지명들을 새로 보충하여 가급적 한글세대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애썼지요.”

사전편찬에 제격인 컴퓨터와 같은 첨단기계의 편리함을 마다하고 표제어 하나하나마다 카드를 만들어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지다가 이견이 있거나 실체와 틀린 점이 발견되면 다시 찾아 수정을 거듭하는 등 수작업의 ‘미련스러움’ 때문에 전용신(고려대 명예교수)옹의

역사책이나 고전소설, 옛지도 등에 나타나 있는 우리네 옛지명들을 간략한 연혁과 함께 현재의 위치와 현재의 지명으로 알기쉽게 풀이해 놓은 「한국고지명사전」이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은 물론 옛문헌을 뒤적이며 문득문득 나타나는 요령부득의 지명들에 궁금증을 가졌던 요즘 독자들에게 반가운 참고자료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리라.



전용신 교수.

정성이 더욱 속속들이 느껴져오는 이 사전에는 「한국지명연혁고」 등 동류의 책이 미처 수록하지 못했던 鎭·堡·浦·驛·院의 특수단위 지명은 물론 가장 최근까지의 학자들의 주장까지 담아내고 있어 가치를 더한다.

본문도 본문이려니와 그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록편에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삼국시대 때는 南平壤城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漢陽郡으로, 고려 때는 楊州로, 조선시대에는 漢城府로, 일제시대에는 京城府로 달리 불렀던 것 같이 각 지방의 주요 군이나 현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살핀 地名沿革表를 비롯해 逢巖노선, 搬站表, 三國有名

未詳地名, 院所在地 등을 실고 있으며, 찾아보기란에서는 현재의 각 시·도·군 별로 남아 있는 고지명을 수록, 각 지역의 지명적 특징을 살펴볼게 한다.

“한자세대가 이뤄놓고 가야 할 과제”

“예를 들어, 우리가 ‘서대문’이라고 지칭은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서대문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어떤이는 적십자병원 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이는 독립문 부근의 사거리를 서대문이라 하고 또 어떤이는 경향신문사 옆 삼거리를 그곳으로 일컫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역사학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김상일 지음 / 6,500원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즉 과정 철학을 유교, 불교, 도교 사상 등 동양철학의 입장에서 풀이한 화이트헤드 철학에 대한 입문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조화, 이론과 실천의 관계, 여성해방 문제, 상담학, 목회학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불교와 양명학

아라키 켄고 지음/김석근 옮김 / 4,500원

명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전개되는 사상계의 흐름을 밀도있고 역동적으로 그려낸다. 심학에 주목함으로써 주자학을 넘어선 양명학, 이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불교(특히 선불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두 임금님

F.B. 니카씨오 지음/채윤경 옮김 / 3,000원

착하고 호기심 많은 한 소녀가 즐기는 것에만 바빠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즐거운 나라’와 자신의 괴로움에만 빠져 슬퍼하는 ‘괴로운 나라’를 여행한 후, 기쁨과 슬픔은 함께 나눌 때 기쁨은 더 커지고 슬픔은 더 작아짐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

논리와 철학

곽강제 엮음 / 6,500원

논리와 논리학에 관한 12편의 글을 모은 것. 10편은 엮은이에게 논리의 영역·원리·가치가 무엇이며 논리적 사고가 철학에서 얼마나 근본적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해준 글들이고, 2편은 논리에 관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엮은이의 생각을 적은 글들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을 공부하면서도 당시의 지명이 현재의 어디 인지 모르는 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것은 '안씨성'이라 하면 요동반도 부근이라는 것만 알지 현재의 어디를 이르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이 반쪽짜리 역사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그 근간이 될 고지명 연구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한자를 좀 알아 고서를 뒤적이는 게 그리 버겁지 않는 우리 같은 세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싶어 부실한 점을 무릅쓰고 서둘러 냈지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전을 내놓으면서 "맞지 않는 게 더러 있을지 모른다"는 말로 고지명 사전편찬의 쉽지 않음을 대신 표현하는 전용이 수십권의 고문헌과 지도터미 속에서 꼬박 5년여를 보냈다고 해서 그가 전적으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씨 가운데 '풍양조씨'라는 조선시대 세도를 날렸던 명문이 있는데, 그 '풍양'을 찾아 나서 그저 '양주 동 50리'라고만 되어 있던 옛기록을 구체적인 현재 지명으로 옮겨놓은 것이 그런 예다.

"경기도 양주에서 동쪽으로 50리를 쫓아가 보니 세조의 능이 있는 광능내가 그쯤이었어요. 거기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근처의 '진접면 내강리'에 풍양국민학교가 지금도 있으니 그곳쯤이 아닐까 그러더군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인근 어디에도 풍양이란 지명이 사용되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이름에 그것이 남아 내려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내강리'가 아니라 '내곡리'가 풍양일 거라는 예

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풍양은 지금의 '진접면 내곡리'인 거지요. 대대로 한곳에서 살아온 지역 토박이들이 문헌보다 더 정확히 지명의 내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문헌을 뒤적이거나 문헌이 지칭하는 현장을 찾아나가는 방법 외에도 그가 고지명의 현재지명을 밝혀내는 방법 가운데는 마치 옷본을 뜨듯 고지도와 최신지도를 맞대놓고 일일이 연필로 "찍어가며" 짝을 맞추는 지극히 원시적인 작업도 있다. 그것이 가당키나 할까 하고 잠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도제작의 원리나 산세의 흐름, 지리에 해박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 터무니없는 작업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용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수긍이 갔다. 그가 다 닦아지도록 사용한 것이 1861년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의 1936년도판 영인본과 1990년에 제작된 새한국도로지도, 그리고 1991년 나온 최신북한지도이다.

5만분의 1 축도의 이 지도를 서로 펼쳐놓고 능선과 산줄기를 살펴가는 작업은 한 곳을 제대로 찾아내는 데만 족히 한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찍어낸" 지명에서 당시 지명의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이때에 그 지역 일대의 지명연혁표가 필요해진다. 가령, 그 지역에 현령이 있었다면 지명에 '현'이라든가 '고리'와 같은 현령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수가 많다. "지명이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속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게 그의 경험담이다.

이처럼 지도를 오랫동안 보아온 경험은 때로 문헌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지에까지 이

른다. '撫夷堡'는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함경북도 경흥군 북 26리'에 위치해 있다. 대동여지도에도 이 지명이 나타나 있기는 한데, 무슨면 무슨리에 정확히 표시돼 있지 않다. 그는 북한지도를 펴놓고 함북 경흥군 일대의 산새와 도로를 살펴가며 '보'가 될 만한 곳을 찾았다고 한다. "'보'는 원래 마을을 보호하는 진지로 일반마을과는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뒤적여봐도 '보'가 될 만한 곳은 '북 26리'가 아니라 '동남 26리'였어요. 그건 「동국여지승람」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전에 해박한 심리학자 출신

이처럼 정성을 들여가며 「한국고지명사전」을 펴낸 그가 고지명과 관련깊은 국문학도, 역사학도, 그렇다고 지리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 '고대-비네'라는 유아에서 성인까지의 지능검사프로그램을 개발해 널리 보급시킨 심리학자라는 점은 무척 의외다. 이름자 뒤에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단 지가 벌써 이래나 되는 그가 이처럼 생경한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한 10여년쯤 된다.

"늙으면 다 그런가 보다"라며 나이가 들수록 고전쪽으로 기울어지는 관심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웃음짓는 전용은 古典들을 보며 거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정말 거기일까" 하고 자주 의심을 품은 것이 오늘의 이 사전을 출간하게 된 먼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고지명의 유래나 변천과정, 그것의 현재 지명까지 "좀 개운하게" 알 만한 것을 찾던 그의 갈증을 달래줄 참고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한 학계의

현실이 "퇴직 이후 무엇을 할까"로 고민하던 이 노교수의 결심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보충하고 손봐야 할 곳이 적지 않아요. 고문헌 속에 나오는 지명수가 2만여개에 달하는데, 이 사전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5천개가 채 못되는 데서도 알 수 있지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세종지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도 손색없는 「동국여지승람」마저도 그 후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고지명의 상당부분이 불명인 상태로 묻혀 있는 것이 많은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이나마 밝혀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고지명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있는 제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책을 내고 나니 손끝이 허전하여 또 무언갈 "저지름" 궁리를 하고 있다는 그는, 퇴직 직후엔 「일본서기」(일지사, 전3권)도 번역해내 일본어 실력의 만만찮음도 과시한 바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시간은 이 사전의 미비한 부분을 메우는 데 바쳐질 것 같다고 말끝을 맺는다.

—정혜옥 기자

染色의 美

백태호 지음 / 10,000원

현대 산업사회의 시대 배경에 맞추어 염색공예 작품 제작에 필요한 실체적인 기술과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염색의 재료·기법·양식, 염색 공예의 미·동향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구상에서 제작·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다양한 작품의 사진을 곁들여 설명하였다.

産業陶瓷成型技法

R. Waechter, M. L. Gallaway-Okajima 지음
김옥조 옮김 / 6,000원

산업도자 이론과 제작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저 베슈테르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석고를 이용한 원형과 원형틀 기법의 모든 것을 사진 및 그림 430장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전문가는 물론 초보자들이 석고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꾸민 실습교재이다.

한국 木家具의 전통 양식

배만실 지음 / 12,000원

한국 전통 가구의 양식과 변천에 대한 역사적 논증으로 가구의 제작공정을 설명하고 상세한 도면을 제시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국 전통 가구의 양식을 이해시킨다. 특히 중국·일본에 비해 독자적인 변천을 해 온 한국 가구의 독특성을 구명하였다.

미술의 이해(상·하)

Jean A. Vincent 지음 / 조선미 옮김
상권 : 5,000원, 하권 : 6,000원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사를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인문적 상황, 작가와 작품의 특유성 등으로 나누어 서술한 개설서이다. 원시미술, 고대 근동 미술,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의 여러 특질과 유럽 미술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대학 교양 도서이다.

학술출판 대학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 : 360-3164, 362-6076, 팩스/메일 : 312-4312